제23권
51
2015년 12월 27일

가만히 생각해 보니

신윤식

가만히 생각해보니
뭔가 이루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하지 않았다.
목표라는 것을 세우지 않았기에
성취란 이름의 실천도 없었다.
살게 하신 대로 살았고
바람에 실려 구름 가듯
흐르는가 싶었는데
어느새 한해가 끝이 난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룬 것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실천이 없는 것도 아니다.
매일매일 주를 바라보는
외로운 자리에서
복음을 외쳐왔으니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또한 나의 이룸이 아니고
나의 실천도 아니다.
하늘의 뜻대로 이루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그분이 일하신 흔적일 뿐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산 것이 아니었다.
거부할 수 없는
큰 힘에 이끌려 온
은혜였을 뿐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사55:8)

은석교회
GOSPEL EUNSEOK CHURCH
www.onlycross.net

담임목사
신 윤 식
시무장로
이영민 이성희
협동장로
조규현

MATHETES

대구광역시 북구 구리로 38길 7-12 ☎ 421-9049 070-8714-9049 010-3323-9049 sys5806@hanmail.net

주일오전설교

두로에 대한 심판

겔 26:1-6

자신에게서 죄를 보게 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이제는 '죄'라는 말이 너무 식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아직 죄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죄라는 말이 식상하게 다가온다면 그것은 죄를 보고 죄로 말미암아 자신을 알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죄를 아는 척,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 척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 사람이 쉽게 자신의 죄를 알고 인정하며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 그토록 집요하게 추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를 안다는 것은 누구나 죄로 인정하는 몇 가지의 잘못된 행동을 찾아내어 인정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죄는 그렇게 쉽게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는 우리가 발견할 수 없도록 어딘가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죄인지 아십니까? 스스로를 죄인으로 고백하시고 인정하신다면 그 죄가 무엇인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피의자가 범죄한 사실이 있을 때 진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진술서는 자신이 행한 범죄 사실을 스스로 기재한 서면을 말합니다. 그처럼 여러분이 만약 죄에 대해 진술서를 작성하신다면 그 내용을 뭐라고 쓸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죄를 윤리와 도덕으로 이해한 사람들은 어렸을 때 지우개 하나 훔친 것까지 기억해 내는 것으로 죄를 철저히 회개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윤리와 도덕적 죄에 종교적 시각에서의 죄를 첨가합니다. 주일 예배에 빠지고 십일조를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 등등이 그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죄를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소경입니다. 때문에 저는 신자가 죄에 대해 눈이 열리고 자신에게서 죄를 보게 된다면 그것이야 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죄의 결국은 심판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나 이방 나라나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심판에 차별이 있지 않습니다. 동일한 죄이기 때문에 동일한 심판으로 종결됩니다.

25장에서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네 나라의 죄와 심판에 대한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처하면서도 정작 이방과 동일한 이스라엘의 죄를 보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과 다를 바 없는 패역한 족속들이었습니

다. 그럼에도 자신들을 이방과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이방과 동일하게 자기를 위해 살았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따른다고 생각한 것이 죄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26장부터 28장까지는 두로에 대한 심판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25:1-17절의 짧은 내용에서는 네 나라에 대한 심판이 다루어지고 있는 반면 두로에 대한 심판 이야기는 아주 길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두로가 다른 이방 나라에 비해 아주 악하고 많은 죄를 행한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놀랍게도 언급되는 두로의 죄는 2절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는 이 한 구절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두로의 죄는 간단히 말하면 예루살렘의 멸망을 좋아한 것입니다. 그것도 예루살렘과 원수 같은 관계에 있어서라기보다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자신들에게 경제적 이득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좋아한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 관계나 국가의 관계에서 얼마든지 그리고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로 인해 두로를 심판하겠다 하시고 그 심판에 대해 25장의 네 나라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세밀히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죄의 차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판에 대한 기록이 짧고 길고의 여부를 죄의 가벼움과 중대함으로 나눌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죄일 뿐 가볍고 중대한 것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죄가 가볍고 중대한 것으로 차별된다면 우리는 서로의 죄를 비교하면서 누구의 죄가 더 큰지를 저울질하는 일에 몰두할 것이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자기 죄에 대해서는 관대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하나 먹음으로써 세상이 죽음이라는 심판아래 있게 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부각시키면서 아담과 하와의 죄가 크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삽니까? 결국 죄를 추적하면 할수록 올무에 걸려서 꼼짝 못하게 되는 존재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추적하는데도 결국은 죄에 갇혀 있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로에 대한 심판 내용이 많다고 해서 두로의 죄를 특별하게 볼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 두로를 내세워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그만큼 많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두로에 대한 심판 이야기에 납득되려면 무엇보다 두로의 죄가 납득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25:3절에 보면 암몬 족속도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아하 좋다' 라고 좋아한 것으로 인해 심판이 예언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로 또한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을 좋아한 것으로 인해 심판을 받는다면 과연 심판의 대상인 암몬이나 두로가 그것을 납득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암몬이나 두로, 그리고 또 다른 이방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집착과 욕망으로 인해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팽개치면서 그 자비와 사랑을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교회활동만을 생각하며 마치 하나님의 뜻

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처럼 인식하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면서도 죄에서 벗어나 사는 것처럼 여기게 됩니다.

두로의 죄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좋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2절)**는 말이 그것입니다.

두로는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 있는 도시입니다. 따라서 바다를 통한 무역으로 인해 경제적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두로의 약간 아래 내륙 쪽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보면 두로가 내륙과 무역을 하는데 있어서 예루살렘이 방해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면 두로가 내륙과 무역하는 일에 있어서 유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좋아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두로는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이 두로 때문도 아닙니다. 두로는 단지 예루살렘 멸망으로 인해 자신들이 얻을 이익을 생각하며 좋아했을 뿐입니다. 누구나 두로와 같은 상황이라면 두로처럼 좋아했을 것입니다. 다른 이의 고통, 환난, 어려움보다는 내게 돌아올 이익에 마음 끌리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로의 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을 좋아했다는 이유로 멸망했다면 두로의 죄에서 심각성을 발견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현실이 죄를 알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말한다 해도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듯 둔감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로의 죄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로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좋아 한 것은 단지 타인이 잘못되는 것을 좋아한 것이 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으로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윤리와 도덕에 의해 규정되는 죄의 수준입니다. 겉으로는 타인이 잘못되는 것을 좋아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내막을 본다면 윤리와 도덕이 아닌 다른 중대한 문제를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2절을 다시 보면 두로는 예루살렘을 만민의 문으로 일컫습니다. 만민의 문이 깨진 것을 예루살렘에 깨진 것으로, 즉 멸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방 나라인 두로가 예루살렘을 만민의 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예루살렘이 지니고 있는 특이성을 알지 못하고서는 나올 수 없는 말입니다. 만민의 문이라는 것은 만민의 중심이라는 뜻인데, 두로가 경제적으로 자신들보다 약한 예루살렘을 만민의 문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두로와 이스라엘의 관계는 다윗 왕 때에 처음 등장합니다. 삼하 5:1-3절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윗이 있는 헤브론에 와서 다윗을 왕으로 섬기기로 작정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도 헤브론으로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부스 사람이 차지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쳐서 빼앗아 다윗 성으로 이름 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강성하여 가나안 지역 전체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것을 삼하 5:10절에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삼하 5:11절에 보면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로 왕 히람이 자발적으로 다윗을 위한 집을 짓기

위해 사람과 백향목을 보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윗과의 화친을 원했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영향력이 주변 모든 나라에게 미친 상태에서 다윗과 친분을 맺는 것이 두로의 평안을 위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두로 왕 히람과 다윗의 관계는 솔로몬까지 이어집니다. 왕상 5:1절을 보면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고 말합니다.

왕상 5장에 보면 솔로몬이 두로 왕 히람에게 다윗이 전쟁으로 인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음을 말하면서 성전 건축을 도와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히람은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왕상 5:7)**라고 말하며 성전 건축을 돕게 되고 솔로몬과도 화친의 약조를 맺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십년 만에 성전과 왕궁의 건축을 마치고 히람에게 성전 건축을 도운 보답으로 갈릴리 땅의 성읍 스무 곳을 줍니다. 그런데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가불(기쁘지 않다)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히람의 잘못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두로가 누구로 인해 존재했는가를 잊은 것입니다. 히람은 다윗과의 화친으로 인해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가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다고 할 정도로 다윗으로 인해 살았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도와달라고 했을 때도 기뻐하며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준 성읍이 마음에 들지 않아 가불이라고 이름 지은 것입니다.

히람이 진심으로 두로가 다윗으로 인해 평화롭게 존재했음을 잊지 않는다면 솔로몬에게 받은 성읍이 어떤 것이든 고마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히람은 성읍을 받고나자 자신이 성전 건축을 도와준 공로를 생각하게 되고, 결국 그에 비해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솔로몬의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생각한다면 두로가 예루살렘을 만민의 문으로 말하는 것은, 다윗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좋아한 것은 그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 다윗 덕분이라는 것을 잊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로의 죄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준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주어진 것을 눈에 들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은혜 아래 있음을 잊은 것입니다. 이것이 두로를 통해 볼 수 있는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두로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 또한 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사라질 먼지와 같은 존재들일 뿐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힘을 추구하고 그 힘으로 살고자 하는 길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살고자 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을 존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결론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참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는 것이 죄입니다. 올 한해도 은혜로 살았다는 고백이 결론으로 남기 바랍니다.

주일오후설교 (12.6일 설교 : 믿음 43강)

믿음과 전도

딛 1:1-4

전도에 대해 말할 때 먼저 연결 고리를 끊어야 하는 것은 교회 성장입니다. 교회가 전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교회 성장을 위해서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데 정작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는 교회 성장과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현대 교회가 말하는 전도가 성경의 의미에서 벗어나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교회 성장이라는 고리를 끊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교회 성장을 향한 목사의 욕망에 의해 전도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자의 사명이라는 명목과 함께 반드시 실천해야 할 법으로 강조되면서 신자에게 무거운 짐으로 안겨지는 것이 현대 교회의 실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전도가 잘 된다. 안된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 의미가 교인 수가 늘고 늘지 않는 것에 있음을 생각한다면 분명 한국교회는 전도에 대해 성경에서 벗어난 이해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사도도 교인 수의 확장에 의미를 둔 전도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것이고 도는 십자가 복음을 뜻합니다. 이 말에 의의를 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어야 하는 것은 과연 십자가 복음이 사람을 교회로 오게 하는데 효과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 5:1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로 인해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거북하고 듣기 싫은 말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전도가 교회를 성장하게 할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거부하지 않고 박해 없는 십자가 아닌 십자가를 알고 있는 결과입니다.

3절에 보면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도는 말씀을 세상에 나타내신 것인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합니다. 자기 백성을 찾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전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도로 인해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가 세상 곳곳에 세워졌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으로 세상은 하나님의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음을 드러내었을 뿐입니다.

사도는 이 전도를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셨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전도의 사명을 맡은 사도가 갈 길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입니다. 이것이 전도의 길이기 때문에 전도를 교회 성장과 연결하는 것은 결코 불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 전파에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지역이나 장소에 고정되어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다스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 백성들을 찾기 위해 십자가의 도가 전파되는 것이고, 십자가의 도가 전파되게 하셔서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결국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확장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교인 수, 교회수의 증가를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독교 세력, 교회 세력이 확장되는 것을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명목으로 미화하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이 그처럼 양적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양적으로 미미한 것은 하나님 나라로서 불완전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계속 자라가야 한다는 말도 다르지 않습니다. 계속 자라가야 한다면 늘 현재는 미완성이고 부족하다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었고 충만의 상태이기 때문에 확장되어야 하거나 채워야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전도 또한 성경이 말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전도가 무엇이고 전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안다면 현대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전도의 실상에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전도는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전도에 힘을 써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전도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고, 그 전도를 사도에 맡겼으며 사도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도가 간 길로 가는 우리에게 맡겨졌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 전도는 간단합니다. 복음을 복음 그대로 전파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과 욕망이 걸러지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로 모여서 알게 된 것이 있고 여러분께 전파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어야 합니다. 교회에 대한 생각으로 교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관심을 두게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께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다는 증거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복음이 전파되었다면 여러분에게서 나와지는 것은 복음일 것입니다. 복음에 의해 다스려지면서 복음이 내용으로 하고 있는 예수님의 피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따라서 전도를 어떤 방법, 활동, 실천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복음으로 사는 것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 말이 가장 쉬운 말이면서도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산다는 것을 특별한 행함의 실천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 드릴 것은 그냥 복음으로 사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는 여러분이 계속 복음 안에서 알아가야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노아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노아의 전도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은 오늘 우리가 심판에서의 구원을 생각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여러분께 맡겨진 전도입니다.

예배시간안내

주일오전예배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30분
수요일예배	오후 7시30분
어린이예배	주일오후 1시10분
중등부예배	주일오후 1시10분
금요기도회	오후 7시30

(매화)

오늘의 말씀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 90:10-12)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전예배

11:00 인도 : 신윤식 목사

묵상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64장
교 독 문	3(시4편)
기 도	이영민 장로
찬 송	560장
성경봉독	겔 26:1-6
설 교	신윤식 목사

두로에 대한 심판(58강)

기 도	설교자
찬 송	301장
교회소식	이영민 장로
*찬 송	5장
*축 도	설교자

다음주기도 : 이성희 장로

*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오후예배

14:30 인도 : 신윤식 목사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214장
기 도	황경영 권사
찬 송	303장
성경봉독	고후 12:1-5
설 교	신윤식 목사

믿음의 체험 (믿음46강)

기 도	설교자
찬 송	545장
주기도문	다같이

다음주일기도 : 김윤점 권사

수요예배

19:30 인도 : 신윤식 목사

창세기 82강

은석소식

1. 201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2015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세월의 흐름과 함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온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2. 다음 주에는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공동의회에서는 2015년 재정 결산보고와 2016년 예산을 결의하고 한 해 동안 교회를 위해 수고하실 서리집사를 임명합니다. 공동의회 회원은 은석교회에 등록한 모든 세례교인입니다.
3. 등록하셨습니다. (박갑숙. 칠곡 중앙대로)